

여야 의원·잠룡들 광주로 ... '5·18 국민 통합' 이룬다

유족회, 법안 통과 도운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 추모제에 첫 초청
대권 잠룡들 잇따라 5·18묘지 참배·기념식 참석 ... "국민 통합" 메시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의 초석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그동안 진보와 보수로 분열돼 극한의 대립을 보였던 여야 정치권이 5·18 41주년을 맞아 대거 광주를 방문하면서 통합의 한마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5월 단체가 처음으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정식 초청한다. 여야 대권 잠룡들까지 광주를 잇따라 찾으면서 정치권에서 5·18 41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5·18 유족회는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초청했다. 초청 대상은 정운천(비례) 의원과 성일종(충남 서산·대안) 의원이다. 정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보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단체의 초청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초청은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논란이 되던 때와 비교하면 '상징적'인 상황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꾸준히 추진한 '호남 동행' 행보가 결실을 맺은 의미있는 초청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호남 지역구 자매결연 성격의 '호남 동행'을 추진해왔다.

정 의원은 특히 김종민 전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

문과 무문 사죄 이후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몸심양면으로 노력했다.

성 의원은 5·18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5·18 관련 특별법 제정에 몇 차례 제동을 걸면서 '호남 동행'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5·18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데 감격중인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 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도 지난 7일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고, 조선 의원들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를 잇따라 찾으면서 5월 광주에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거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광주와 전남을 돌며 호남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광주에서 '광주선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 선언을 통해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하고,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용진 의원 등도 1박2일의 일정 계획되어 있다.



양동시장 상인들이 '5·18 주먹밥' 나누기
을 재현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주먹밥을 싸 시민들에게 나눠줬던 노점상인들이 오는 18일 제 41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해 16일 광주시 서구 양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야권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5·18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이라며 "5·18 미진한 부분의 진실 밝혀져야

용서도 수습도 가능하다"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5·18 회생 결과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누리려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인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도 17일 광

주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18일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세 심각 ... 5·18 기념식 '비상'

일주일째 두자릿수 확진 이어져
연휴에 지역사회 집단감염 우려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는 광주 지방공휴일인 18일에 이어 부처님오신날인 19일까지 연휴가 예정돼 있어 대규모 지역사회 집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일단 국가기념식 등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때와 장소, 연휴를 구분하지 않고 확산 중인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명 추가돼 누적 2624명으로 늘었다. 상무지구 관련 2명, 기존 확진자 관련 12명, 타 시도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 불명 2명, 타 시도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 불명 2명 등이다. 광주에선 지난 10일 24명을 기록한 이후 11일 22명, 12일 23명, 13·14일 각각 11명, 15일 14명 등 일주일째 두 자릿수의 신규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올해 5·18 국가기념식은 참석인원을 99명 이내로 축소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입장카드를 지녀야만 국립5·18민주묘지 주차장과 기념식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유족과 시민은 가급적 기념식이 진행되는 오전 10시부터 11시를 피해 분산참배 해줄 것을 권고했

다. 대신 이번 기념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텔레비전(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중계 한다.

전남에서는 16일 오후 6시 현재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여수 8명, 순천·고흥 각 2명, 목포 1명이 발생해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307명으로 늘어났다. 주말인 지난 15일에는 나주 5명, 여수 4명, 화순 2명, 순천·광양 1명씩 모두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도는 이날 들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 방문자에 대해 16일까지 집단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3일까지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김부겸 총리 "마지막 내각 원팀으로 재난 극복"

문 대통령, 총리·장관 4명 임명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줬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환담에서 김 총리 및 장관들에게 "김 총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려"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문회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휩싸였던 임명장은 "정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장관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I 를
중심으로 심장을 뛰게 할 당신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2021 AI창업 경진대회

참가대상 AI 관련 예비창업팀 (2인 이상의 팀 구성)

참가신청 AI 관련 제품·서비스의 제작, 창업 및 사업화 계획

접수기간 2021. 5. 10.(월) - 5. 28.(금) [15시까지]

수상혜택 수상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총 500백만원)

구분	상명	수상팀 수	시제품 제작 지원금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개 팀	팀당 100백만원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장상	2개 팀	팀당 75백만원
우수상	정보통신진흥원장상	3개 팀	팀당 50백만원
장려상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상	4개 팀	팀당 25백만원

접수방법 제출서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www.aica.gj.kr)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 후 제출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ganada4043@hanmail.net

담당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원지원팀